

<서평>

## 『기독교 경학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 해석-경학으로서의 성서 해석』

王大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376쪽

안근조\*

금번王大일 교수의 『기독교 경학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 해석-경학으로서의 성서 해석』은 한국적 성서 읽기를 위한 획기적인 출발점이다. 기존의 성서 해석이 서구 중심의 과학적이고 역사 비평적인 방법론에 근거했다면 경학으로서의 성서 해석은 동양 중심의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성경 읽기로서 성경을 경전되게 하고 성경 독자를 하나님 만남의 장으로 이끄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석과 관련하여 신학교와 교회의 분리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성경 읽기의 원인을 비평 이전 교회의 성서 해석 유산을 상실한 결과로 보고, 비평 이후에 사는 오늘의 교회에 어떻게 옛 유산과 비평 이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통합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민한다. 더불어 성서 해석의 주체로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삶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동양 고유의 사상에 근거한 경학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본서의 가장 큰 공헌이다. 즉, 기존의 성서 해석을 위한 방법론에 치우쳤던 성서 연구의 경향에서

---

\* 호서대학교 교수, 구약학

성경 해석자 자신에게 눈을 돌려 성경 살기의 방향으로 인도함으로써 서구 사상의 비평적 관점에서 해방되어 교회 전통과 통할 뿐만 아니라 동양 사상과도 호흡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한국적 성서 읽기라는 기독교 경학의 신기원(epoch-making)을 이루고 있다.

총 12장 350쪽으로 구성된 본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1장의 “여는 글”에서는 본서의 저작 동기가 개진되어 있다. 다음으로 2장에서 5장은 일반적 성서 해석학적 논의를 각각의 범주와 관련하여 즉, 한국적 경전학(2장), 교부들의 해석(3장), 유대인들의 미드라쉬(4장), 역사 비평(5장)과의 관계성에서 설명하고 있다. 셋째 부분은 6장에서 9장으로 한국적 성서 해석학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한국인의 구약학(6장), 김정준의 구약 해석(7장), 유영모의 성서 해석(8장), 초기 한국교회의 경전적 해석사(9장) 등 의미있는 글들을 접하게 된다. 끝으로 10장에서 12장은王大일 교수의 본격적인 “기독교 경학”을 위한 방법론이 소개되고 있다. 넓이의 해석에서 깊이의 해석으로(10장), 말씀을 종교적으로 읽기(11장), 경학으로서의 성서 해석(12장) 등이 그 내용을 이룬다.

1장 “여는 글, 왜 경학인가?”에서는 저자가 훈련받은 서구의 비평적 성서 해석이 논리적 사유에 그칠 뿐 초월적 실재에 미치는 종교적 상징을 놓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반면에 처음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자연스러웠던 경학적 성서 읽기는 말씀을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로 대했음을 환기시킨다. 경학은 경전 해석학이다. 경학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아는 것이 실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동양적 경학이다. 따라서 성서 해석학은 이제 좁은 의미의 주석을 뛰어 넘어 인문(人文)이 아닌, 천문(天文)을 읽도록 하는 경학의 지평으로 나아가야 함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장 “경전학과 성서 해석-성경을 연주하라”는 한국인의 성경 해석의 자취를 교회사적으로 살피면서 한국인을 위한 성서 해석이 경학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함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경전으로서의 성경의 권위

를 견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 해석 방법보다는 읽는 독자의 인격적 변화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학적 읽기는 성서 해석을 객관적 연구에 머물도록 하지 않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 “연주”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이끈다. 3장 “성서 해석, 하나님을 위한 변론”은 성서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주석 자체보다는 주석하는 사람의 성품으로 본다. 그리고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로고스에서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안내하는 뫼토스의 세계를 목상했던 교부들의 성서 해석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오리게네스에 집중하면서 그의 알레고리적 해석의 유산은 자칫 자의적 해석으로 오해 받은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부지런한 연구와 간절한 목상 속에서 마침내 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프뉴마)을 통한 말씀의 영적인 차원까지 도달하는 성서 해석이었음을 부각시킨다. 교부들의 성서 해석의 유산을 받아들일 때 객관적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성서가 아닌, 성경과 더불어 호흡하고 성서 해석 자체가 기쁨이 되는 참여의 해석학으로 변화함을 강조한다. 4장 “미드라쉬와 경학”은 유대인 랍비들의 성서 읽기인 미드라쉬를 소개하면서 한 책의 사람으로 거듭나려는 유대인의 정신을 부각시킨다. 미드라쉬는 문자적 의미에 매여 있기보다는 현재의 의미에 집중한다. 토라의 뜻도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독자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파악된다. 그럼에도 자의적 해석에 빠지지 않음은 토라를 해석하는 지침들이 경계 규정으로 랍비들에 의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드라쉬의 열매로서 미쉬나와 탈무드가 탄생하였다. 유대인들에게 해설은 그다지 의미 없다. 대신, 주어진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까지 이어지는 지점에서 미드라쉬와 경학이 만난다. 5장 “경학과 역사 비평”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역사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렸던 성서 본문을 되찾기 위해 경학적 읽기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제임스 쿠크이라는 유대인 비평학자가 성서 해석자가 구도자가 되기보다 성서학이라는 학문을 취급하는 실험실의 학자로 머물고 말았다는 자기반성의 모습

을 통해 역사 비평의 한계를 극명하게 소개하고 있다. 유대인 미드라쉬 전통도 그렇고 초기 기독교 성서 해석자들의 유산도 그렇고, 성경은 오늘의 삶에 대한 지침서로 경전의 자리에 있었다. 경학을 통해 지식이 아닌, 문자의 근원과 가르침의 근원으로 들어갈 때 진리 발견의 성서 해석의 세계가 새롭게 열린다.

일반적 성서 해석학을 경학과의 비교에서 소개한 후 왕대일 교수는 한국적 성서 읽기의 기반을 닦는 작업을 시작한다. 먼저, 6장 “한국인의 구약학, 양주삼에서 김정준까지”는 한국교회 초창기에 한국 구약학이 비평적 입장과 보수적 입장의 큰 두 줄기로 나뉘어져 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최근에 들어 양자의 입장을 상호 이해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비평적 성서 해석의 공헌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구약 성서를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역동적인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일이 계속된 과제로 남아있음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 과제 해결로서 경학을 통한 경전의 발견에서 경학의 실천을 제시한다. 성서 신학의 내용으로는 구속사적 관점으로부터 창조적 관점에서의 전환이 중심주제로 부각된다. 7장 “김정준의 구약해석-참여의 해석학”에서는 근본주의 신학으로부터 해방되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참여의 해석학으로 이끈 김정준의 구약 신학이 주된 관심사이다. 비평적 성서 연구의 결과들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실천적인 성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실마리가 폰 라드에게 배운 전승의 현재화(Gegenwärtigung)에 관한 논의이다. 김정준은 이를 그의 참여의 해석학을 위한 토대로 삼는다. 수천 년 전 옛 이스라엘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구원에 대한 고백이 성서 읽기를 통해 체험된다. 따라서 구속사의 현재적 구현을 한국적 구약학의 모델로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김정준의 구약 신학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구속사 중심의 방법론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8장 “다석 유명모의 성서 해석-‘물어서 붙어야 풀어진다’”는 한국어로 철학한 유명모의 성서 해석을 다룬다. 다석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시(詩)이며 말이 아니라 음

(音)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인지적 작업이 아니라 실천적 장을 통해서이다. 그의 성경 해석은 “므름(물음), 브름(붙음), 프름(풀음)”으로 대변된다. 즉, 딱딱한 것도 입에 물어서(므름) 불리면(브름) 풀어지듯(프름), 하나님의 말씀(물음)을 불려서 풀어내려고 한다. 이를 저자는 “물음→묵상→깨달음”으로 정리하고 있다. 다석의 해석은 다소 알레고리적 자의적 풀이의 어려움은 있으나 그의 성서 해석 자체가 해설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서구의 넓이의 해석에서 깊이의 해석으로 향한다. 9장 “초기 한국교회의 경전과 신앙공동체-기독교 경전과 한국인의 만남”은 초기 한국교회의 성서 해석이 곧 한국적 경학이 있음을 밝히고 오늘을 위한 성서 해석학의 창조적 계승을 논의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한 경전의 맥락에서 읽으려는 통일적 읽기의 전통, 즉 다양한 증언과 소리들이 하나의 콘서트로 울리는 조화된 목소리로 읽을 수 있음을 관찰한다. 이는 성서 해석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건이 선행하였기에 가능했다. 초기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은 성경 말씀의 세계가 풀리는 중심에 진정한 말씀의 해석자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 부분인 10장에서 12장은 이제껏 논의하고 관찰해 온 한국적 성서 해석학의 가능성을 토대로 실제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10장 “넓이의 해석에서 깊이의 해석으로-성서 해석학과 그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의 비평적 역사적 재구성의 해석은 넓은 영역의 산만한 읽기였다면, 비평 이전의 렉티오 디비나의 해석은 말씀의 심층적 의미까지 궁구해 들어가는 깊이의 해석임을 보여준다. 기존의 역사 비평적 해석은 성서 본문 배후에 있는 역사적 사실을 추구하기에 종교적, 사회적, 문학적 정황 등 제반적 요소들에 관심을 기울이기에 바빴다. 그러나 이러한 넓이의 해석은 사실의 확인에만 몰두할 뿐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 비평 이전의 신앙 공동체의 읽기는 오히려 깊이의 해석이었다. 렉티오 디비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실천하는 독서 방식이다. 해석 방법론이 아니라 성

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습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렉티오 디비나이다. 실제로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말씀을 먹었던 자들이다(겔 3:1-3; 렘 15:16). 11장 “성서 해석의 새 지평, 말씀을 종교적으로 읽기”는 성서 해석이 궁극적으로 마음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경학 읽기의 본질적 성격을 대변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품는 사람이다. 초대 교부들과 경학적 성서 읽기의 중심 과제는 말씀을 삶 속에 구현하는 일이다. 삶이라는 옷감은 “말씀의 진리”라는 씨줄과 “독자의 상황”이라는 날줄이 서로 엮기설키 엮어져 만들어진다.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가는 자는 경전의 뜻에 맞게 살려는 마음의 노력이 따른다. 이 심학(心學)이 말씀을 종교적으로 읽도록 인도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산 정약용의 경학 연구이다. 끝으로 12장 “맺음말, 경학으로서의 성서 해석”은 저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기독교 경학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방법론적인 기반으로 제시한다. 먼저 경학은 어학이라는 것이다. 경전 읽기의 전통처럼 말씀은 읽고 암송하며 만져야 하고 공부하여 통달할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둘째, 경학의 씨줄이 언어 공부로 대표되는 문사철(文史哲)이라면 경학의 날줄은 시서화(詩書畫)이다. 성경 읽기의 통전적이고 예술적 차원을 강조하는 말이다. 셋째, 경전을 읽을 때 불영과 불행(不盈科不行)의 정신으로 읽어야 한다. 물이 흐를 때 구덩이를 만나면 그 구덩이를 다 채운 다음에야 앞으로 나아가듯 말씀을 읽는 자는 자기부인을 통해 겸허한 구덩이를 가지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왕대일 교수는 성서 해석학의 두 지평이 한국적 기독교 경학에서 서로 만나야 함을 역설한다. 즉, 심학(心學)적 성서 해석과 이학(理學)적 성서 해석의 두 지평이 한국인의 손에서 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때 한국적 성서 읽기는 비로소 세계적 성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본서는 저자가 처음부터 “기독교 경학”이라는 대주제 하에 기획하여 각 장에 해당하는 논문들을 작업해 오다가 마지막 시점에서 기존

논문들을 수정 보완하여 본래 의도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배치하여 완성한 결정체이다. 따라서 다소 반복되는 내용들이 발견되기도 하나 한국인을 위한 성경 해석으로서의 “기독교 경학”의 특징과 방향은 책 전반에 걸쳐서 일관성 있게 녹아들어 있다. 본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적 성서 읽기의 제안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본 서평자에게 다가온 기독교 경학의 요체를 본서에 근거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의 특징적 요소들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기독교 경학은 독자 지향적 읽기이다. 다른 말로, 텍스트 이전의 형성사나 저자의 본뜻이나 본문 자체의 구조(texture)보다는 지금 말씀을 대하는 독자의 상황과 삶에 경전은 응답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경학은 “열려 있는”(open-ended) 성서 읽기이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전통에서 “오직 성서로만”이라는 motto 하에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읽기가 오늘에까지 이어져왔다. 그러나 본서에서 분명히 제시하는 바, 사실상 초대 교부들의 성서 읽기는 문자 이면에 놓여 있는 정신과 윤리, 영적 의미까지 나아가는 것이었다. 오리게네스의 알레고리적 이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이 갖는 자의적 곡해의 위험으로 인해 문자 그대로의 성서 해석이 요청된 바는 있지만, 저자가 강조하듯 깊은 묵상과 영성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와 유비(analogy)를 이루는 메시지 도출에 봉사하는 알레고리적 해석은 여전히 유효하다.王大일 교수는 유대인의 미드라쉬적 전통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유대인의 토라 읽기 자체도 문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넘어 지금 말씀을 낭독하는 후손들의 삶의 상황에서도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구원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는 “구원의 현재화”가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삶의 다양한 문제제기를 가지고, 그러나 말씀이 내게 해답이요 지침이라는 믿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신앙인들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메시지로 다가가는 경전의 능력과 권위가 경학적 성서 읽기를 통해 회복된다.

둘째, 기독교 경학은 반복 읽기이다. 저자는 한국 초대 교회의 경전

적 성서 읽기의 가장 큰 특징이 문자를 모른 상태에서도 반복적 암송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한다. 이후 본격적인 60-70년대의 한국교회의 부흥에서 나타난 사경회에서 반복적 성서 읽기와 암송은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렇게 단순 반복은 서구 사상의 논리와 분석의 사고방식과는 엄연히 구별된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씹고 또 씹으며 묵상하면서 문자의 이면에 놓여 있는 영적 의미의 심층까지 통달하는 것이 반복 읽기이다. 사서삼경의 유학 경전을 줄줄이 외웠던 옛 조선 선비들의 유전을 우리 한국의 초대 교인들은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유가 사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왕대일 교수는 천자문의 첫 4글자 “천지현황”을 인용하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파란 하늘이 검은까를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써 본래적 우주적 신비의 의미에 도달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한 반복 읽기와 암송의 전통이 있었으나 비평적 방법론이 도입된 이후 역사 비평이나 문학 비평 방법론을 성서 해석 방법론의 중심 도구로 삼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한국적 성서 읽기의 유산을 잃어버린 것이다. 반복 읽기의 또 다른 혜택은 성서 본문을 하나로 읽기에 역사 비평의 무차별적 성경 본문에 대한 재단이나 편집 등이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본문 전체를 연결하고 종합하는 통합적 정경 읽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 로고스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하늘의 상징과 뜻이 담긴 뫼토스의 세계로까지 나아가게 하고 단순한 듣기와 연구에서 체험과 깨달음으로 신앙인을 인도한다.

셋째, 기독교 경학은 말씀 살기이다. 성서 해석 방법론이 아니라 해석자인 사람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저자는 초기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붙들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해독할 만한 신앙 사건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지적한다. 방법론이 아니라 해석자의 하나님 체험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지평이 이제 내 삶의 지평과 대입된다. 유영모에게 성서 해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해설이 아니라 삶이 된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말씀을 품었던 자들이다. 유영모의 “므름(물음)→브름(붙음)→프름(풀음)”의

과정은 말씀을 품은 자가 삶을 통해 풀어내고 연주하는 것을 방법론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저자는 본서 전반에 걸쳐서 한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강조한다. 말씀을 먹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요 말씀 자체가 삶이 되는 것이다. 김정준의 한국적 구약 신학이 당시의 상황에서 민중을 위한 해방의 신학으로 구현된 것이 한 예이며, 훨씬 이전 다산 정약용의 경학적 말씀 연구가 급변하게 도전하는 그의 시대에 비판적이고도 개혁적인 경세학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뛰어난 실례이다. 이로써 보건대 경학의 말씀 살기는 소극적 읽기보다는 능동적인 해석이요, 현실 유지를 위한 메시지의 확인보다는 하늘의 뜻대로 현실을 변혁시키는 하늘나라 확장의 실천적 도구가 된다.

넷째, 기독교 경학은 자기 부인이다. 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한다. 그리고 그 비결을 특정한 성서 해석 방법론에 두지 않고 동양적 경적 읽기의 태도로부터 얻는다. “유수 지위물야(流水之爲物也) 불영과불행(不盈科不行).”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즉,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토라는 낮은 자에게로 향함을 직시한 것이다. 경전 읽기는 경전의 소리로 내 속을 채우는 여정이다. 그런데 해석 방법론을 내세우는 비평학에서는 마치 내 속이 이미 다른 잡다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이다. 비평적 방법론을 입 한가득 물은 채 어떻게 경전 암송이 가능하겠으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울 수 있겠는가? 경전을 종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서를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읽고 마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마음으로 심학으로 수용적으로 읽어야 함을王大일 교수는 강조한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에서 아하스 왕에게 선포된 이사야의 메시지는 바로 불영과불행의 가르침과 통한다: “너는 삼가며 중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사 7:4). 눈앞에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삼가며” “중용하라” 하는 것이다. 군사력으로 외교

력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것을 오히려 내려 놓고 고요히 하나님만을 바라라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구덩이로 비워질 때 하나님의 소리인 생명의 물이 나를 채우게 된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좃으라”(마 16:24)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바로 기독교 경학의 핵심가치로 자리한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기독교 경학은 사람 만들기를 향한다. 본래 경학의 목적은 사람 만들기에 있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경학은 사람을 다듬고 만들기 위한 교육론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동양 고전은 옛 성현의 지혜를 듣고 성서 해석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여전히 사람을 다듬고 만드는 일이다. 특히 성서 해석은 땅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 말씀의 실현자가 된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다산 정약용의 경학 연구로 소개되고 있다. 왕대일 교수는 다산이 경학 연구를 마친 뒤 죽는 날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힘을 다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경전 공부의 최종적 귀결은 자기마음을 다스리는 일임을 간파한다. 말씀 공부는 궁극적으로 마음공부이다. 그것이 실제적인 삶으로 보여야 한다. 성서 해석은 마음에 주님의 뜻을 담는 일이다. 여기에서 기독교 경학은 완성된다.

역사 비평을 독일계 미국학자에게 훈련받은 세미나리의 성서학 교수로서, 그러나 동시에 개신교 목사로서 신구약 경전의 복음을 교회에서 선포해야 하는 설교자로서, 왕대일 교수는 성서 해석에서 양자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느끼고 신학적으로 씨름해 왔다. 이미 본서 이전에 이와 관련된 세 권의 저서들을 통해 구약 신학 해석 방법론의 입장들을 정리해 왔었다. 통시적 해석에서 공시적 해석으로의 길을 모색하였으며(『새로운 구약주석-이론과 실제』), 그 공시적

해석을 위해 본문 자체와의 “뜨거운 만남”을 위한 문에 비평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며(『구약주석 새로 보기』), 또 다른 측면에서 성서 해석의 방법론 보다는 성서를 해석하는 독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력도 진행되었다(『구약설교 패러다임』). 이후 10년 만에 성서 해석의 이론서로 다시 쓴 본서 『기독교 경학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 해석-경학으로서의 성서 해석』은 저자가 슬회하고 있듯이 주석 방법론이 아니라 주석하는 사람에게 성경 해석의 “키”(key)가 달려 있다는 깨달음을 해석학적 언어로 갈무리한 결과이다. 저자에게 애초부터 제기된 성서 해석학적 문제제기의 맥락에서 오랜 기간 연구와 강의, 선포와 목회를 통해 고민해 온 모든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본서이다. 더군다나 그동안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한국적 성경 해석의 방법론적 논의까지王大일 교수는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 책을 우리 손에 받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성서 해석이 무엇인지, 기독교 교회의 교부들의 성서 해석의 전통은 무엇이며 초대교회 이전과 이후 유대교 랍비들의 미드라쉬의 유산은 어떤 것이었는지, 역사 비평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비평적 성서 해석학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초기 한국교회의 경전적 읽기는 무엇이었으며 오늘의 한국교회의 성서 읽기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한국적 성서 해석학의 방향과 방법론은 어떠해야 하는 문제 등 이 방대하고도 난해한 이슈들이 이 책 한 권에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본서의 지대한 공헌으로 인해 그 쓰임은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이나 주석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나 신학생부터 한국교회의 성서 해석의 자리를 점검하고자 하는 설교자와 평신도, 그리고 더는 비평적 서구 사상의 해석 방법론이 아닌 우리 고유의 한국적 성서 해석 방법론을 펼치고자 애쓰는 성서 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본서는 해석 방법론, 성서 신학, 설교학, 목회 신학, 경전학 등의 각 분야에서 신선한 도전과 활력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